

# 전남도, 그린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중점 육성

## 태양광·풍력 등 대형사업 추진 10년간 '수소 에너지섬'에 19조 도민 체감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등 에너지정책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올해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발굴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올해 1단계(4.5GW) 중선도사업(1GW) 발전단지를 조기 착공하고 글로벌 터빈사 등의 전남 유치로 해상풍

력 산업생태계를 적기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국가 그린수소산업 메카 도약을 위해선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인력양성-클러스터 구축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1년까지 10년간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등 사업에 19조346억원을 들여 도내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는 3월 빛가람혁신도시에 개교하는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의 우수 연구인력과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도 개발·조성해 특화연구기관과 첨단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국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이 반영된 만큼, 전남에 성공적으로 유치해 나주혁신도시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도민과 상생하는 '체감형 에너지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주민소득 창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5개 발전소(409MW)에서 45억6000만원의 발전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했다. 올해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주민 참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인의 기본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

광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주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조례를 제정, 설비용량 1M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도내 동·서·중부로 권역을 나눠 도민 대상 에너지 전향교육을 하고, 활동가 90여 명을 양성한다.

오는 2031년까지 총 4300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85%까지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LPG 배관망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농어촌·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버스 증차·노선변경·연장 운행 광주시, 설 명절 교통대책 추진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지도와 국·시립묘역 주변 교통편의 제공,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귀성객을 안전하게 수송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귀성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사항을 사전 점검한다.

버스( 시내, 마을), 택시, 지하철과 터미널, 광주송정역,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와 시설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차량소독활동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지도한다.

정상 운영하는 망월·영락 실외묘지의 성묘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 공무원, 경찰, 모범안전자 등 100여 명이 교통정리와 주·정차 지도·단속한다. 광천터미널과 광주송정역 등에도 350여 명이 배치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설 명절 전남인 31일부터는 귀성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1월 28회 증차해 운행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월남동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성묘객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8722억 사업 발주 지역경제 도움 상반기 집중

### 모든 사업 투명 공개

전남도가 올해 공사 7984억원, 용역 363억원, 물품 375억원 등 모두 8722억원의 사업을 발주한다.

전남도는 26일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발주하는 모든 사업 계획을 누리집 계약정보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발주 규모는 지난해보다 1550억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은 석곡-북면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 1096억, 군남-영광 간 지방도 4차로 확장공사 4400억, 금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06억 등이다. 총 872건을 발주한다.

사업 시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사업비의 95%인 8323억원을 신속 발주할 계획이다.

여기에 22개 시·군의 올해 사업 발주 규모는 2조 7000억원 규모다. 시·군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 발주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행정을 수행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업체 49% 이상 공동도급과 공사하도급 시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 물품 구매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내 최대규모의 주민상생형 발전사업인 150MW 신안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이 26일 오전 신안군 지도읍 신안갯길타운에서 열렸다.

## 전남 최대 주민상생 신안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 3196억 들어 150MW급 규모 지도 주민에 연 27억 이익 공유

전남도가 26일 신안 지도읍의 신안갯길타운에서 도내 최대 규모 주민상생형 발전사업인 150MW 신안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농림발전, ㈜탑산, 지도·사육도 주민조합이 총 3196억원을 투자해 신안 지도읍 일원 폐염전부지에 150MW 규모로 조성됐다.

연간 약 197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4인 가정 기준 4만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주민참여로 운영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도읍 주민 3040명이 지도·사육도 2개 조합을 구성해 전체 사업비의 약 4%인 128억원을 투자했다. 연간 1인당 44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게 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에는 특별지원금 23억원과 매년 기본 지원금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대한민국과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기원, 461억 투입 농업 신기술 현장보급 확대

전남농업기술원은 26일 "기후변화, 디지털농업 등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신기술 현장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신기술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비 68억원 늘려 159개 사업에 걸쳐 모두 461억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식량작물 39개 사업 183억원 ▲원예특작 64개 사업 164억원 ▲축산기술 29개 사업 65억원 ▲농촌자원 27개 사업 49억원이다.

식량작물 분야에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저탄소 비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기상 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저탄소 재배단지 5개소를 구축한다. 3억원을 들여 기상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20억4000만원 규모의 기상재해대응 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한다. 품목별 첨단 스마트팜 시범사업지를 도내 25개소에 구축하는 등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도 확대한다.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모은다.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용 미생물과 함께 축산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사업비 20억원을 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6개소에 투입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